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관세음 · 지장보살 내 마음 자리에 있어

15면에서 계속

다른 생활도 그렇게 대처하실 수는 없는가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내가 한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는 정체는 뭐니? 누구입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또는 한발짝 내딛고 또 내딛으며 걸을 때 그건 누가 하는가? 거기엔 '나'라는 의식이 붙어 들어가는가? 그냥 자동적이죠.
딱히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냥 행동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내가 소화시켜야지'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소화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주체를 불가에서

이 세상은 꿈과 같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참 뜻은 한마디로 '꿈 깨라'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결코 현재에 주(住)하지 않기에 부득이 큰스님들께서 언어를 빌려 무심(無心)이다, '무아(無我)'다 하신 것 아닙니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일심이지요. 일심이고 무심이지요. 전자에 내가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지은 게 다 지금에 쥘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심이 현재심 아닙니까? 그래서 3천년전이나 오늘이요 오늘이 3천년전입니다.
영원한 오늘이라고 해도 되죠.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데 그게 다 현재심입니다. 찰나찰나 나뉘는 현재심 속에 과거심도 있고 미래심도 있습니다.
수박씨를 심어 울레 수박이 열리고 울



그림 · 최주현

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상대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아는 절, 아는 스님도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런 일이 있은후 어떤 날에는 머리가 너무나 아픈적이 종종 있었고 잠을 자면 항상 이상한 게 보이고 그래서 항상 그게 두렵고 ... 제대로 잠도 못이루고 헛소리도 하고...정말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쉽게 남한테나 가족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하며 하였습니다.
지금은 머리 아픈 것은 별로 없어도

공부하는 중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관세음보살을 친경했다고도 하는데 그것 또한 주인공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나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나온 자리에 되놓아야 하지요. 그럴 때 이게 뭐냐? 공부야 익어가서 이러냐?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자칫하면 말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주인공에 되놓는다 해야 하고 두렵거나 싫은 마음이 들면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지!' 하고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되놓고 맡겨야 합니다. 이 공부는 놓고 또 놓고 가는 공부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나'라는 집착을 놓아 아주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도 찰나찰나 바뀌니 본래 그 '나'는 없는 것입니다

는 '찰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외면하고 '나'라는 관념을 제 주인으로 잘못 알아서 '내가 했네, 내 것이네' 하면서 깔등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무능하다 못하다 찰나찰나 하는 생각에 휩싸여 울었다 웃었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살라. '나'는 속 빠져라 하는 겁니다. 이통하여 '나'라고 하는 그놈이 할 일은 '주인공'!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긴채 행동 그 자체로만 남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하인이고 집할 것 같은데 달리 말해서 '내가 하면서 왜 잘 못한다'고 누굴 탓할 것이냐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은 찰나찰나에 변하고 바뀌니 본래 그 '나'는 없는 겁니다.

해 수박씨에서 다시 내년 수박이 열릴 것이니 어디에 과거씨가 있고 미래씨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현재심도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뉘고 있으니 현재다 오늘이다 고정되게 말할 게 없지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니 내가 아버지 이다가 부인이 여보!하고 부르니 어느새 남편이 됩니다. 이거다!라고 규정지을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 '이거다'라고 규정짓는 유휴법을 통한포용이라 할 밖에는요. 아시겠습니까?
마음 흐려 한줄 알고나니 웃음이
마음의 본바탕이 허공임을 알고 하루종일 웃음이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바탕과 합일하는데 최소 1시간은 참선을 해야 합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참선은 행복합니다.
2개로 보지는 않으나 걸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걸림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

말 감시드립니다.
이번에 스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은 요즘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공이 있으니 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일에 대한 것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근본자리에 놓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또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모든 다 공경하는 생각까지도
모르면 '알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뿐이다' 하고 놓고 공경하면 '주인공 공경하지 않게 가르쳐 봐' 하고 놓으세요.
놓는 공부엔 믿음이 첫째로 중요하다는 걸 잊지마시구요.
경을 읽고 있는 순간이 힘들고 하기 싫은 적이 있었지만 다 읽고 나면 어떤 뿌듯한 감정이 남곤 하여서 재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가 지나자 어떤 색다른 감정이 들더군요. 3독을 하여도 처음 시작할 때만큼 개운하지도 않고 여운이 남는 것 같고 머리로 약간 부딪히 가는 것 같고 여운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계속 며칠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자 하루는 3독을 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양손을 무릎에 놓고 참선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니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군에 가기 전부터 저는 책을 통해서 참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3독을 하고 난 뒤에

일체경계 내 마음 자리서 나온 것 그자리에 되놓고 또 되놓으세요 그래야 입력된 게 몽땅 지워져요

잠을 자려고 하면 항상 저는 이상한 감정에 싸여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 하고 만나게 되고 저는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그날은 항상 잠을 깊게 못자고 다음날 생활하는 데도 지장을 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할머니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할머니는 그 이상한 것을 읽어서 귀신을 불러들인 것 이리면서 경을 읽지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이 어떻게 그런 하찮은 귀신들이나 불러주는 경이겠습니까?
저는 <금강경>도 읽지 못하고 그 당시만큼 신심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삽니다. 학생이지만 공부도 안하고 두렵게 말할 수 있는 상대지도 없고...
신문에서 대행스님의 상담하는 것을 보고 한번 여쭙어 보아가지고 버려다 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괜히 글을 쓴 게 아니냐 하는 후회도 드는데 아무쪼록 편집장님께서 큰스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적성에 맞는 일 몰라 고민
문) 근복무 기간을 거의 마치고 제대를 한 달여 남기고 있는 군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잘 할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 전공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하고 다른 일에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이미 3년이나 다녔고 지금 생각하는 다른 일이라는 것도 결국 또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지고,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부당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노력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위의 제 고민에 대해서도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내 나무의 뿌리인 주인공을 믿고 '답을 주는 것도 주인공 너뿐이다' 하고 놓고 관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체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기 쉬운데 그러다가 이게 좋을까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얼마 안가서 또 흔들리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흉이라고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것 또한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니 다른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수록 제 뿌리를 굳게 믿고 거기에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너만이 답을 할 수 있지 않아!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너, 그 길을 가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잡은 물고기 천도하고 싶어요
문) 시골에서 성장한 저는 어릴 적부터 고기 잡는 것을 즐겨 하였습니다. 한 번은 또래 친구들과 개울에 농어를 풀어서 고기를 물살이 쉰 일도 있었 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추후도 하지 않고 죽은 고기를 건져서 온 식구가 끓여 먹었습니다.
우연히든 몰라도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갖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아 왔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무참하게 살육당한 물고기들과 수중생명을 위해서 천도도 하고 지내 주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천도제를 지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극하다면 이미 천도가 된 것입니다. 내 생명과 그 생명이 본래 둘이 아니니까 물 한방울에 물 한방울 섞이니 그대로 물 한방울이다 하듯이 내 마음자리로 안아 들린다면 그대로 천도가 되는 것이죠.

'나'란 관념을 제주인으로 잘못 알아 번민 "자신과 법을 믿어 직접 행하고 맛 보세요"

일니까?
일체의 행·말·뜻에서 '나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나'가 죽어야 본래면목과 계합이 됩니다. 거기엔 내가 알았다 라는 것조차도 붙질 않습니다.
마음이 좀 편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모양인데 그것대로 좋긴 하겠지만 내가 죽고 또 죽어 일체와 물이 아 남을 깨닫고 돌 아가게 나뉠 수 있어야 영매가 무르익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라든 나쁜 것이라든 논하지 말고, 일체 경계는 내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 다시 그 자리에 되놓고 되놓고, 연방 되놓아 가도록 하세요. 그래야 과거에 입력된 것이 몽땅 지워져서 공태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버려야 나뉠 가능하지요
문) 인간의 고정된 생각을 벗어났어도 아직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은 자기자신을 나누기는 힘든지요?
고정된 생각에서 아주 벗어나고 그래서 일체는 고정됨이 없이 나뉘니 공이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라는 걸 알면 이미 '나'는 공해서 있다 없다 할 것이 없지요.
생각만으로 '고정된 게 없다'라 해서 는 아직 벗어난 게 아닙니다.
주인공 믿는 게 곧 놓는 건지요
문)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큰스님의 가르침에 정

참선중 손이 떠 올라 당황
편집장님!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에 관한 내용이 라면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군에 있을 때 사단 법당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는 법당에서 보는 현대불교신문은 저의 애독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일주일에 한번 가는 종교 행사 때 빼놓지 않았던 법당을 찾았습니다. 저 자신이 길을 찾기위한 불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 행사 시간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였고 어쩌다 참석 못하게 되면 실망과 괴로움이 남곤 했었지요. 당시 사단법당의 법사님도 항상 장병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때 <금강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강경>이라는 경 이름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제대후 <금강경>을 가지고 독송을 했습니다.
집에서 하루에 한번 아침 정해진 시간에 3번을 혼자서 큰소리로 독송했습니다. 경을 읽기 전에는 항상 샤워를 하였고 방을 청소하였고 향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정도가 되니까 처음 읽을 때만큼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는 참선을 했습니다. 길 때는 30분이요 못해도 20분은 했습니다. 거의 한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참선을 하는데 무릎 위에 있던 손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떠도 보니 양 손이 머리 아래 턱 정도까지 올라 가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 마음과 두려움에 그냥 손을 내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을 두고 반복되었죠. 저는 항상 손이 올라 가려고 하면 그만 두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가만히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올라가는 양손은 거의 머리 아래 턱정도에서 멈추더니 손목이 갑자기 앞으로 꺾였습니다.
그 전에는 양 손바닥이 하늘로 향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손목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강렬하게 요동을 쳐서 저의 물이 주체를 못하겠네요. 마구 마구 새가 날개짓하듯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거죠. 저절로 멈추게 하고 기다렸습니다. 20분 30분이 흘렀는데도 멈출 기색이 없네요. 저는 손목이 무지 아팠습니다. 등에는 땀이 한바가지였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그냥 손목에 힘을 꼭 쥐고 멈추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멈추었고 저는 기진맥진하여 그냥 방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도저히 겁이 나서 독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읽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네요. 그리고 나서도 항상 경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문에 저의 글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큰스님께서 올려도 된다고 하시면 저는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의 E-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좋은 인연 있게 되든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불교는 물론이거니와 현대불교신문의 무한한 번창이 있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일차 선원을 방문 하셔서 스님에게 상의하심이 좋을 겁니다.
신심은 가상하나 이 공부는 비우는 공부이지 뭔가를 얻어 가지려는 공부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형상은 공이니까 했죠.
경을 독송하는 것도 좋고 좌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까닭이 뭘이겠습니까?
본래 고정됨이 없이 나뉘며 돌아가니 일체가 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 행주좌와 중에 내게 닥치는 모든 경계를 나온 자리에 되놓고 관함으로써 차츰차츰 근본자리 불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체를 그 자리인 주인공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꿈과 같다'는 뜻
문) <금강경>에 보면 일체 유휴법은 꿈과 같고 현것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웅덩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불지 나라'라는 사구계(四句偈)가 나옵니다.
스님, 이 세상은 꿈과 같다는 말 역시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과거에 고달리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인간의 마음이 처달리기에

합찬 한마음